

# 광주시 정책 빛났다...역대 최대 수상

### 경제·일자리·복지·돌봄·혁신 등 각종 분야 두드러진 성과 통합돌봄 대통령상 등 63건 수상...3년 평균비 61% 증가 정책소풍·정책평가박람회 등 시민 목소리 시정 적극 반영

민선 8기 광주시가 경제·일자리·복지·돌봄·혁신 등 각종 중앙부처 평가에서 최고상을 휩쓰는 등 전국적으로 우수한 행정력을 인정받고 있다.

5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4년 한 해 정부합동평가, 일자리, 복지 등 다양한 시정 분야에서 총 63건의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는 지난 3년(2021년 40건, 2022년 28건, 2023년 49건) 평균 수상건수와 비교해 61%나 증가한 실적으로, 역대 최대 수상 기록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정책 선정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평가박람회',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소풍'과 '온라인 시민광장 광주온(ON)' 등 다양한 소통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중앙부처 평가 등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광주시는 특히 지난해 민생경제와 일자리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에서 일자리공시제 부문 대상과 일자리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발한 기업 유치를 추진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중소기업 육성'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 투자유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도 올렸다.

시는 또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고용노동부 주관 '지자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1위,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세입증대분야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민생경제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광주시는 지난해 복지·돌봄 분야에서도 전국 선도모델을 제시하며 각종 상을 휩쓸었다.

대한민국 돌봄 민주주의 대명사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신정주의 선별적 돌봄을 보편적 통합돌봄 체계로 혁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4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응급의료 유공분야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뒤 광주시 직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주관 적정 행정 정부 유공 포상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다.

시는 이 밖에도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정책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청년드림은행은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 지역청년 지원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전 분야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23년~2024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평가'에서도 우수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우수, 소방청 주관 '봄철 화재안전대책 평가'

전국 1위, 소방청 주관 '전국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대상 등 시민 안전분야에서 타 지자체를 압도하는 실력을 뽐냈다.

민선 8기 들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내부 행정 평가 분야에서도 빛을 내고 있다.

지난해 4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가 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7억 7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며, 이어진 5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 및 정보공개평가 종합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SA)을 획득했다.

또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8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와 함께 공공기관 혁신의 전국 모범으로 인정받았으며,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방규제 우수지자체 평가' 광역시·도 부문 전국 1위,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심사 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A등급' 획득 등의 성과를 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 각종 정부 평가에서 얻은 우수한 성과는 모든 공직자가 '이제는 된다'는 희망과 의지를 갖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물"이라며 "대한민국의 활력 성장판이자 자존심인 광주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좋은 시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서 전국 최대 '2026 전국도서관대회' 열린다

### 시·한국도서관협회·광주관광공사 협약... 3500여명 독서진흥정책 공유

국내 최대 규모 도서관 행사인 '전국 도서관대회'가 2026년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한국도서관협회, 광주관광공사와 '제63회 전국도서관대회 전시회 개최지 지원사항 이행 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전국 도서관대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광역시자치단체 등이 모여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도서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매년 10월 개최된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전국 도서관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부대행사 추진 등 행정적 지원을, 광주관광공사는 MICE(미스,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사업 지원 등에 나선다. 제63회 전국도서

관대회는 2026년 10월 28~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 기간 3500여명이 참여해 지역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예상된다. 2026년에는 광주 대표 도서관도 개관해 개최 의미가 더욱 특별한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성배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광주시가 '책 읽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전국 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김승남(가운데)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지난 2일 2025년 사무식 및 임용식을 가진 뒤 신입사원 8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주도시공사, 新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첫걸음

### 사무식·신입사원 임용식

광주도시공사가 2025년 사무식과 신입사원 임용식을 갖고 힘찬 새해 출발을 알렸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일 열린 사무식에서 2025년 을사년 새해 주요 사업 방향과 계획을 담은 신년사와 '미래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새로운 미션을 선포했다"고 5일 밝혔다.

김승남 사장은 이날 2025년 경영목표와 2030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경영원칙으로 '시민감동', '소통협력', '혁신성장', '투명공정' 네 가지의 핵심가치를 제시했다. 공사는 앞으로 시민 중심 서

비스 제공, 자유로운 소통, 창의적 아이디어, 원칙과 신뢰에 기반한 업무 수행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사무식에서는 신입사원 8명의 임용식도 함께 진행됐다. 신입 이선민 사원은 "공기업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승남 사장은 "2025년은 광주도시공사가 미래도시 창조 공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새해에는 공사의 목표뿐만 아니라 일직선 개인의 소중한 목표까지 모두 이뤄지는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ACC~전대병원오거리 왕복 5차로 개통

광주시는 "지난 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전남대병원오거리를 연결하는 '광산길'을 기존 일방 2차로에서 왕복 5차로로 확장·개통했다"고 5일 밝혔다.

동구 광산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진입도로이며, 5차로로 확장하고 도로 양측에 폭 3~4m의 보도를 조성했다.

광주시는 이번 확장 개통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의 상습 교통체증이 일부 해소되고, 인세의 거리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산길을 평소 왕복 5차로(문화전당

방향 2차로+전남대병원 방향 3차로)로 이용하고, 주말이나 지역축제 등 일정 기간에는 '차 없는 보행로'로 변경해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에 맞는 다양한 사회실현이 가능한 길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광산길은 주변의 푸른길공원, 동명동, 양림동, 광주공원 빛포차거리 등과 연결 광주의 대표적 걷기 좋은 길로 조성된다"며 "보행자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변모하면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AI농업마케팅 교육생 모집

### 광주농업기술센터 10일까지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0일까지 농업인의 경영·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AI농업마케팅' 과정의 교육생 1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AI농업마케팅 교육과정은 Chat GPT, 넵킨 인공지능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농장 브랜딩 로고 및 영상 제작,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디지털 마케팅 전반을 다루며,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